

김돌산 심방 본풀이 채록

할망본풀이

천왕불도(天皇佛道) 할마님 지왕불도(地皇佛道) 할마님 인왕불도(人皇佛道) 할마님 석가산은 석가여래 산불도 할마님.

할마님은 인간 탄싱(誕生)할 때, 정월(正月) 초사흘날 탄싱 허난, 삼월은 삼진(上辰)날 노각산 조부줄로¹⁾ 인간땅더레 도노립데다. 입서월덜(四月) 초파일날은 놉이 나라 부체 훈착²⁾ 갈라단 우리나라 동동절을 설련할 때³⁾ 할마님도 성 안내도 예순 업게⁴⁾ 성베끼디⁵⁾ 예순 업게 놀어 놀어 성을 들러 일칭경(一層格) 이칭경 삼칭경 별총당(別草堂)을 무어 샅데다.

할마님, 낮인 내난가위 마련허고, 밤이는 불선가위 마련허영 동양은 삼국 서양은 각국 줄에 팔만십이제국을 다 돌아 뎡기명⁶⁾ 생불(生佛)을 주는데,

흐를날은⁷⁾ 인간 생불 할마님 이구산에 도올르난, 흥신국 대별상이 할마님 낳은 애긴 생불 주고, 해산(解産) 시경⁸⁾ 훈 설⁹⁾ 두 설 열다섯 십오 세 안내 할마님 내온 애기 정 고치레 내립데다.

정 고치레 내리난,

“어평헌 여인이 대인(大人)이 가는다¹⁰⁾ 질을¹¹⁾ 갈람수쥌?”

허난, 난 인간 생불 할마님이 뉘옵니덴 허난, 할마님 생불 준 애기 정 고치레 내림수덴 허난.

계건 우리 집이 가민 훈 일곱 살 난 애기가 잇이난, 은준지¹²⁾ 늦준지 아랑준지 흐썩만¹³⁾ 지어똥¹⁴⁾ 가렌 허난, 할마니 그말 곱아두고¹⁵⁾ 내난가위 불선가위 생불 주래 다니단 집이오란 보난,

흥신국 대별상이 준지 흐썩만¹⁶⁾ 지어똥 가렌 허난, 닷말 닷뉘¹⁷⁾ 뿌려 불엇구나. 닷

1) 노각산 조부줄: 하늘에 오르내리는 길로서 잡고 오르내리는 줄인 듯.

2) 훈착: 한쪽.

3) 설련할 때: 마련할 때.

4) 예순 업게: 업저지

5) 베끼디: 밖에.

6) 뎡기명: 다니면서.

7) 흐를날은: 하룻날은.

8) 시경: 시켜서.

9) 훈 설: 한 살.

10) 가는다: 가는데.

11) 질을: 길을.

12) 준지: 진주(眞珠). 여기서는 그 모양이 마마자국과 같다고 해서 쓰임. 둥근 것. 두드러기 같은 것.

13) 흐썩만: 아주 조금만.

14) 지어똥: 지어 두고. 있게 하고.

15) 곱아두고: 말해두고.

16) 흐썩만: 조금만.

말 닷뉘 뿌려부난 엮거든¹⁸⁾ 시질마나, 시건 엮질마나, 엮고 시고, 비틀어지고 뉘와지고, 혼 번을 보민 다시 또 혼 번을 볼 수가 엇게 멘들앗구나.¹⁹⁾ 할마님은 생불을 주영 좋은 얼굴 좋은 체대(體大) 내와 주영²⁰⁾ 이젠 어뎡허민 좋을고 문을 잡아 누엇구나.

할마님은 문을 잡아 누난, 느진덱이 정하님이 흐루 이틀 멧날 메칠²¹⁾ 기다리단
“할마님.”

문을 올안²²⁾

“할마님아, 할마님아. 문을 잡아 누민 어뎡헉네까?”

“게민 어뎡 허느니? 고운 얼굴 고운 체대 흥신국 대별상이 엮고시고 비틀어지게 멘들아부난, 오랑,²³⁾ 손이 발이 뉘게, 발이 손이 뉘게 삭삭 빌게 헉셴.”

허난, 할마님은 귀가 쫑긋 헤엿구나.

“어찌허민 그렇게 뉘겟느나?”

“할마님아, 혼일은²⁴⁾ 알고 두일 모릅네까?”

“어뎡허민 좋으느니?”

허난,

“흥신국 대별상 부인에 생불을 주어근에 헤산을 시기지 맙셔.”

할마님,

“올다. 그걸 생각지 못허엿구나.”

흥신국 대별상 부인에 생불을 주어 혼 달²⁵⁾ 두 달 열 달을 넘영 스물넉 달이 뉘여가도 어뎡 애기 굽 갈르질²⁶⁾ 못허난, 어뎡 애기 다 죽게 생겟구나.

흥신국 대별상은 옥황더레 축술 허난, 인간 생불 할마님 노염을²⁷⁾ 갖엇이난, 생불 할망 노염을 푼셴 허난,

“아이고, 이젠 어뎡허민 좋으리오.”

흥신국 대별상이 저 올레로 누람지²⁸⁾ 폐와 놓고²⁹⁾ 상불 피와³⁰⁾ 놓고 연차물³¹⁾ 떠 놓고 손이 발이 뉘게. 비가 오난 눈이 오나 굽영³²⁾ 종금종금 할마님 방안 문앞이 꺾지³³⁾ 오난,

17) 닷말 닷뉘: 다섯 말, 다섯 되.

18) 엮거든: 마마 자국이 생기게 하거든.

19) 멘들앗구나: 만들엇구나.

20) 내와 주영: 만들어 주어서.

21) 멧날 메칠: 멧날 며칠.

22) 올안: 열어서.

23) 오랑: 와서.

24) 혼일은: 한가지 일은.

25) 혼 달: 한 달.

26) 굽 갈르질: 금(그릇) 가르지를. 여기서는 어머니 몸에 있는 아기를 낳는 것을 뜻함.

27) 노염을: 노여움을.

28) 누람지: 이엉과 비슷한 것으로 날가리 위에 덮는 물건.

29) 폐와 놓고: 퍼 놓고.

30) 피와: 피워.

31) 연차물: 차물(茶水). ‘연-’은 접두사.

32) 굽영: 굽어서.

할마님아, 할마님아. 노염을 품센 허여가난, 어평헌 양반이 우리신디 소인신디 빙니 켜 허난,

“할마님아, 과연 잘못헤엿수다.”

할마님이,

“너 즈순은³⁴⁾ 아깝고 놈이 즈순 아니 아깝느냐? 나 즈순 좋은 얼굴 내여노라. 좋은 메치³⁵⁾ 내여노라.”

“할마님, 과연 잘못헤엿우다.”

다시 은준지 늦준지 메울만이 메와보쿠덴 허여근. 고운 얼굴을 멘드난, 솜솜들이 얽긴 얽어도 흥귀인이 더 돋았구나.³⁶⁾ 그만허민 쓸 만허다. 어서 강 기다리렌 허난에, 인간 생불 할마님 물멩지(水泂紳) 치메³⁷⁾ 강멩지 치메, 멩지 줄장옷³⁸⁾ 열두 단추 돌곡³⁹⁾ 허연. 입어앗어⁴⁰⁾ 모리 뒷날 소오시가 뉘여가난, 물멩지 강멩지 줄장옷 벗언 간지⁴¹⁾ 걸어두고, 치멘 벗언에 곤지에 걸어두고 애기어멍 가심으로⁴²⁾ 솔솔허게 찢언⁴³⁾ 열두 구에문⁴⁴⁾ 열려근 어멍 애기 곱 갈르난, 눈도 코도 엇인 애기 낱데다.

“아이고, 할마님아, 할마님아. 어평허난 눈도 코도 엇인 애기 낱수쨌?”

허난,

“느만 두불⁴⁵⁾ 재주 부리느냐, 나도 두불 재줄 부린다.”

은고췌⁴⁶⁾ 내여노난, 콧물을 알로 조로록 타난⁴⁷⁾ 앞니명엔⁴⁸⁾ 해님 곶은⁴⁹⁾ 애기씨로구나. 뒷니명엔 들님⁵⁰⁾ 곶은 애기씨로구나. 곱닥헌 애기씨가 탄싱(誕生) 허난, 흥신국 대별상이 허는 말이,

“할마님아, 할마님아. 나 재주가 좋덴 헤여도 할마님 재줄 뜨라갈⁵¹⁾ 수가 잇입니 켜.”

허난에, 할마님은 부정헌 디 덩기난 브름 알로, 날랑 브름 위로.

옛날은 애기 열다섯 십오 세가 뉘여가민 마누라 허여근, 일주일 피곡 일주일은 들

33) 문앞에 꺾지: 문앞에 까지.

34) 즈순은: 자손은.

35) 메치: 맵시.

36) 흥귀인이 돋았구나: 마마가 나아서 얼굴이 좋아졌다는 뜻임.

37) 물멩지 치메: 좋은 명주 치마.

38) 줄장옷: 외투로 쓰거나 수의로 쓰는 옷.

39) 돌곡: 달고서

40) 입어앗어: 입고서.

41) 간지: 화. 옷을 걸어 놓거나 물건을 올려 놓거나 닭 따위를 앉히기에 좋게 걸쳐 놓거나 매달아 놓은 긴 대나 막대]

42) 가심으로: 가슴으로.

43) 찢언: 찢어서.

44) 구에문: 궁(宮)의 문. 여성 생식기를 뜻함.

45) 두불: 횡수를 나타내는 말로 ‘두 번째’나 ‘두 번째의’의 뜻을 나타내는 말.

46) 은고췌: 은가위.

47) 타난: 트니.

48) 앞니명엔: 앞 이마에는.

49) 해님 곶은: 해님 곶은.

50) 들님: 달님.

51) 뜨라갈: 따라갈.

어가곡. 부름이 뉘여가민 마누라 베송 헤여근, 네 귀에 풍경 돌리곡⁵²⁾ 허영 구쟁기 딱살에⁵³⁾ 은준지 늦준지 아랑준지 은전만랑 잘 시꺼근, 이 삼 소(四) 월 뉘여가민 보 리밧더레 놓아, 강⁵⁴⁾ 마누라 베송⁵⁵⁾ 내여주는 법이 뉘엿습네다.

훈반 일반 좌정허영. 할마님은 애기 열다섯 십오 세 안네 그늘 엷고 흥신국 대별상은 얼굴 츠지협네다.

이젠, 훈반 일반 헤영. 할마님, 인간 생불 할마님 천왕불도 지왕불도 인왕불도 석가산 석가여래 산불도 멩진국 할마님은 인간 즈순들 이거 생불환생 주는 법을 마련헤엿우다.

짓알로 도노리민⁵⁶⁾ 동이용궁 할마님, 아방국은 동이용궁 어멍국은 서이와당⁵⁷⁾ 메화부인. 훈 설⁵⁸⁾ 두 설 아홉 설이 뉘여가난, 세 설적 날레 멩석⁵⁹⁾ 허트른 쥬목이여.⁶⁰⁾ 아버지 삼각산(三角鬚) 머릴 훤은 쥬목이여. 시염⁶¹⁾ 훤은 쥬목이여. 어머니م 젓가심 두드린 쥬척을 마련허영 무쇄설갑⁶²⁾ 띠완, 동이와당더레⁶³⁾ 띠와불엇구나.

동이와당더레 띠와부난, 물 아래도 연삼년 물 위이도 연삼년 흥당망당 떠 뎅기단⁶⁴⁾ 해녀물가에 올랐구나. 임모루주 임박사가 부베간이⁶⁵⁾ 입장갈림⁶⁶⁾ 허영 이십 스물 삼십 서른이 넘어도 애기 엷언⁶⁷⁾ 호호탐복을⁶⁸⁾ 협네다. 산천 기도를 가도 애기 엷고, 절간 법당 기돌 가도 애기가 엷고,

흐를 날은 해녀물가에 불공을 가난 무쇄설갑이 올랐구나. 무쇄설갑을 올리난, 무쇄설갑을 올안 보난, 꽃 곱은⁶⁹⁾ 애기씨가 잇엇구나. 누계가 뵈네끼엔 허난, 아방 눈엔 시찌나고⁷⁰⁾ 어멍 눈에 굴리난⁷¹⁾ 인간생불 할마님으로 인간더레 나가젠 행 오락젠 허난,

아이고, 우리 애기 엷언 호호탐복 허염수다. 치메통에 담안오란 궤⁷²⁾ 우이⁷³⁾ 모삿구나.⁷⁴⁾ 포테(胞胎)를 주엇구나.

52) 돌리곡: 달리고.

53) 구쟁기 딱살에: 소라 딱살에.

54) 강: 가서.

55) 마누라 베송: 마누라는 마마의 방언. 마마를 앓을 때에 마마신을 청하여 곱게 마마를 시켜 주기를 빌고, 그 마마신을 후히 대접하여 치송하는 의례이다.

56) 짓알로 도노리민: 아래로 내려서면.

57) 서이와당: 서해바다.

58) 훈 설: 한 살.

59) 날레 멩석: 곡식을 햇볕에 말리려고 멩석에 넣어놓은 것.

60) 쥬목이여: 죄목이여.

61) 시염: 수영.

62) 무쇄설갑: 무쇠 석갑(石匣).

63) 동이와당더레: 동해바다에.

64) 뎅기단: 다니다가.

65) 부베간이: 부부가.

66) 입장갈림: 혼인.

67) 엷언: 없어서.

68) 호호탐복을: 근심. 걱정을.

69) 꽃 곱은: 꽃 같은.

70) 시찌나고: 거슬리고.

71) 굴리난: 거슬리고.

72) 궤: 나무로 상자처럼 짜서 옷 같은 것을 보관 하는 것.

73) 우이: 위에.

흔 덜 두 덜 열 덜 넘고, 열두 덜이 넘어 배속에선 던데적 마니적⁷⁵⁾ 헤여도 어멍 애기 곱 갈르지 못허연. 애기 어멍 죽을 스경(死境) 다돌으난⁷⁶⁾ 어멍허민 조코, 이젠 이구산에 도올르저.

이구산에 도올르난, 흔짜⁷⁷⁾ 손엔 금바랑을⁷⁸⁾ 심곡 흔쪽 손엔 옥바랑을 심언 옥황더레 축수를 허난, 옥황상전님이 만주대신을 내어놓아근.

“인간더레 굶어보라. 어느 누계가 저렇게 처량허게 금바랑 소리를 내느냐? 옥바랑 소리를 내느냐?”

허난, 임모루주 임박사가 애기 엇언 호호탐복 허난, 인간더레 생불 할마님을 처급(處給) 시켜줍센 헤연. 밤인 원불(願佛), 낮인 수록(水陸)을⁷⁹⁾ 올림수덴 허난,

“아이고, 어느 누계가 인간생불 할마님이 뉘겠느냐?”

“멩전대왕 뜨님애기 총명 허난 인간생불 할마님으로 내보넉서.”

노각산 조부줄로 인간더레 도노립데다. 인간더레 도노리난, 애기 어멍 죽을스경 다 돌았구나. 할마님 열두 줄장옷 벗언 간지에 걸어두고 물멩지 치메는 곤지에 걸어두고 애기어멍 젓가심⁸⁰⁾ 삼세 번 찢어간다.⁸¹⁾ 열두 구에문 열령 애기 어멍 곱 갈릅데다.

애기 날 때 동더레⁸²⁾ 머리 현 애긴 동부젯법(東富者法), 서더레 머리 현 애긴 서가난법(西家難法), 남더레 머리 현 애긴 남장수법(南將帥法), 북더레 머리 현 애긴 북단명법(北短命法) 마련허영 공 들이명⁸³⁾ 사는 법 마련헤엿우다.

업게삼승⁸⁴⁾ 불러간다. 구덕삼승⁸⁵⁾ 불러간다. 혼사흘엔 모옥메. 혼일렛 치셋메,⁸⁶⁾ 석덜은 백일메, 일 년은 돌메, 왕이자랑 왕이자랑 허노렌 허난, 동이용궁 할마님 놀려들언⁸⁷⁾

“이년아, 저년아. 나가 생불 할망인다. 너가 생불 할망이냐?”

싸움발악 허여가난, 인간 생불 할마님 옥황더레 도올릅데다. 옥황더레 도올란, 옥황상전님신디 간. 옥황상전님아, 인간에 간보난 생불 할망이 잇입디덴 허난, 옥황상전님이 부화가 난, 철망도설을 내어놓안 인간더레 도노련 동이용궁할망 옥황더레 걸려올립데다.

“너는 누계가 뉘느냐?”

바려보난,⁸⁸⁾ 얼굴도 꼭굴아지다.⁸⁹⁾ 치세(體勢)도 꼭굴아지다. 나이도 꼭굴아지엇구

74) 모삿구나: 모셨구나.

75) 던데적 마니적: 애기가 많이 큰 형태.

76) 다돌으난: 다다르니.

77) 흔짜: 한쪽.

78) 금바랑: 금바라.

79) 낮인 수록: 낮에 불공을 드린다는 뜻.

80) 젓가심: 젓가슴.

81) 찢어간다: 쓸어간다.

82) 동더레: 동쪽으로.

83) 공 들이명: 공 들이면서

84) 업게삼승: 업저지의 수호신.

85) 구덕삼승: 제주에서 아기들이 누웠던 요람의 수호신.

86) 혼일렛 치셋메: 한 일뤼에는(7일) 삼승할망 상에 쌀을 올린다는 뜻.

87) 놀려들언: 달려들어서.

88) 바려보난: 바라보니.

나.

“나는 아방국은 동이용궁, 어멍국은 서이와당 메화부인인디 혼 두 설 열다섯 십오 세 안내 아흙 설꺅지 빌흐럽⁹⁰⁾ 썬어지난 인간땅 노려 강⁹¹⁾ 생불 할망으로 들어사렌 허연. 인간땅 노려오는 질에 생불을 처급 시기는 법은 베와도 헤산법을 못 베완 왓우 다.”

허난, 흘 수 엇구나, 계건, 네네 꽃이나 싱경⁹²⁾ 꽃상구나⁹³⁾ 허영. 번성꽃(繁盛花) 환성꽃(還生花) 허는 자랑 인간 할망⁹⁴⁾ 마련허고, 검뉴울꽃⁹⁵⁾ 허는 자랑 저싱 할망⁹⁶⁾ 마련허렌 허난, 걸랑 기영 험서.

인간 생불 할마님도 은수반(銀水盤)에 꽃을 싱급데다. 동이용궁 할마님도 은수반에 꽃을 싱급데다. 동이용궁 할마님 싱근 꽃은⁹⁷⁾ 불리도 웨불리,⁹⁸⁾ 가지도 웨가지 검뉴울꽃이 뒤여지고,

인간생불 할마님 싱근 꽃은 불린 웨불리 가진 소만오천육백가지. 동더레 번은 가진 동청목(東靑木) 똤데다. 서드레 번은 가지는 서백금(西百金) 똤데다. 남더레 번은 가지는 남적화(南赤火), 북더레 번은 가지는 북혜수(北黑水) 보록보록 혼번을 불 것 곱으민⁹⁹⁾ 천년이나 살 듯, 혼번을 불 것 곱으민 만년이나 살 듯 영 험데다.

“너네 저싱 할망 인간 할망 곱 갈르라.”

동이용궁 할망이랑 저싱 할망 마련허고, 인간생불 할망이랑 인간생불 할망 멩진국 할망 마련허렌 허난, 동이용궁 할망 부화가 난, 꽃을 하나 꺽음데다.

“그건 무사 꺽영 감시니?”

허난, 나도 살 도량을 헤삽니켤. 아무탈 엇이민 인간 즈순덜 할마님신디 등장(等狀)을 못 헐거난, 인간 살명 석 덜만이 꺽여가고 피로 흘르게 허고, 나근엔¹⁰⁰⁾ 혼일뤼에 늦인 거, 혼 사흘에 븃든 거,¹⁰¹⁾ 정세정풍 망경징(증) 불려주고, 보다근¹⁰²⁾ 다글다글¹⁰³⁾ 걸어가민 물러레도 빠정 등경¹⁰⁴⁾ 저싱더레 가게 허고, 빌흐럽 썬여지고, 아들만 나게허곡 톨만 나게 허여가민, 어디 강 들으민 구할망에 걸렸우다. 구천낭에 걸렸우다. 영 허민 할망맛이 허영.

동이용궁 할마님, 애기 어멍 단치메도 벗어놓고 단저고리도 벗어놓고, 인정 하영 내

89) 꼭꺽아지다: 똑꺽아지다.

90) 빌흐럽: 어린애가 무엇을 달라고 흥흥 거리는 짓.

91) 노려 강: 내려 가서.

92) 싱경: 심어서.

93) 꽃상구: 꽃 심기 내기.

94) 인간할망: 인간 세상의 삼승할망(産神)

95) 검뉴울꽃: 시들어가는 꽃.

96) 저싱할망: 저승에서 죽은 아기의 혼을 관장하는 여신. ‘구할망’ ‘구삼싱’ ‘구천낭할망’ 등이라 부름.

97) 싱근 꽃은: 심은 꽃은.

98) 웨불리: 한 뿌리.

99) 곱으민: 같으면.

100) 나근엔: 낳은 후엔.

101) 븃든 거: 짧은 것. 모자란 것.

102) 보다근: 보다가.

103) 다글다글: 어린애가 귀엽게 뒤똥거리며 걸어다니는 것을 나타내는 말.

104) 등경: 당겨서.

여근, 쇠똥¹⁰⁵⁾ 좋고 뭍똥¹⁰⁶⁾ 좋은 터진 생기지방으로¹⁰⁷⁾ 잘 방송(放送)허영 인정 반양
굽 갈릅센 헤영. 송엄¹⁰⁸⁾ 주지 맵센 헤영. 저싱할망 이싱할망 굽 갈르는 법을 마련헤
엿우다.

저싱 할망은, 저싱 할망 날은 초하루 열나흘에 스무아흐레 초나흘 초아흐레 열나흘
열나흘에 스무나흘 할망날을 마련허고,

인간생불 할망 날은 초사흘 초일뤼 열사흘 열일뤼 스무사흘 스무일뤼 할망날을 마
련허연. 할마님에 등장 들어근 모두 저싱 할망 이싱 할망 굽 갈르는 법입네다.

헌 설적 두 설적 열다섯 십오세 안내 간 애기덜, 밥 먹던 애기덜, 젓 먹던 애기덜,
동이용궁 할마님 채고 가고, 인간생불 할망은 열다섯 십오세 안내에 그늘놔¹⁰⁹⁾ 줍네
다. 이 즈순덜 이제 모두 열다섯 십오세 안내에 낳은 애기덜 문¹¹⁰⁾ 그늘놔 성인시경
전대전손(全隊傳孫) 만대유전(萬代遺傳) 혈 즈순덜¹¹¹⁾ 문 나습서.

105) 쇠똥: 소똥.

106) 뭍똥: 말똥.

107) 생기지방으로: 큰구들과 고폡 사이에 있는 지방으로.

108) 송엄: 흥엄.

109) 그늘놔: 잘 보호하며 보살펴 주다.

110) 문: 모두.

111) 즈순덜: 자손들.